

都市主婦의 結婚滿足度와 離婚態度에 關한 研究

A Study on Urban Wives'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Attitude

한양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박 찬 미

교 수 : 서 병 숙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Park Chan Mi*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Prof. : Seo Byong Sook*

목 차

- | | |
|----------------|------------|
| I. 序 論 | Ⅲ. 研究假說設定 |
| Ⅱ. 理論的 背景 | Ⅳ. 研究方法 |
| 1) 結婚滿足度 | Ⅴ. 結果 및 解釋 |
| 2) 離婚 및 離婚態度 | Ⅵ. 結論 및 提言 |
| 3)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Wives'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attitude as a basis building in marital stability.

A measurement tools used for this study are marital satisfaction scale, which was adapted and reproduced from Dyadic Adjustment Scale(D. A. S.) developed by Spanier and Divorce Attitude Scale, which was developed by researcher refer to preceding study connected with a cause of divorce. The subjects were 354 married women dwelling in Seoul.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one 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re is the tendency to high marital satisfaction group rather more than low marital satisfaction group and to permissional attitude group rather more than negative attitude group about divorce attitude.

2) There was difference in marital satisfaction by number of children, wives' s educational level, parents' marriage happiness.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in marital satisfaction by

length of marriage, family income, wives' employments status, marriage pattern.

3) There was partially difference in wives' attitude toward divorce by wives'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wives' attitude toward divorce by the other factors.

4) Wives' attitude toward divorce correlates with marital satisfac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is .283 significantly on .001 level. The more satisfaction wife feels about her own matrimony, the more negative a attitude she has toward divorce. This means that attitude toward divorce depends upon their matrimony.

5) The four type of marital stability are as follows ; high marital stability type, high subjective unstability type, high objective unstability type, high marital unstability type.

I. 序 論

1) 問題의 提言

오늘날 擴大家族에서 夫婦中心의 核家族으로의 變動 가운데 특히 重要한 意義를 지니는 現象은 擴大家族制度和 比較하여 核家族制度는 심각한 不安性을 內包하고 있다는 點이다. 現代家族의 不安定狀態는 夫婦간의 相互適應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夫婦 이외의 여타 家族成員이나 親族과의 適應與否問題로 家族關係가 위기에 처할 可能性은 희박하다. 또한 現代의 夫婦가 愛情을 基本여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結婚生活의 尤대를 강하게 하는 것이면서 同時に 不安定한 것으로 만드는 結果가 되고 있다(이호재 1976, 50-51). 따라서 夫婦關係는 家族의 가장 기초가 되는 一次的 要件(유영주 1981, 47)으로서 大部分의 夫婦들은 結婚生活에서 比較的 滿足을 느끼고 있으나, 서로의 關係에 滿足하지 못하게 될 경우, 不滿스러운 結婚을 持續하거나, 離婚으로써 家族을 解體시키게 된다. 이러한 離婚은 한 家族을 붕괴시켜 家族關係 전반에 變化를 가져온다. 즉 離婚後 당사자의 愛情的·情緒的 問題, 社會的·經濟的 問題, 子女의 養育 및 그들의 정서적 問題, 기타 社會에 파생되는 여

러가지 問題點을 야기시킨다(김혜선 1982 b, 101-103).

오늘날 結婚의 不適應狀態라 볼 수 있는 離婚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는 結婚安定性 이론의 必要性을 뜻하며, 이것이 最近에는 結婚不安定性 이론으로서 擴大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價値觀의 變化가 수반되어 離婚에 대한 許容的 態度가 增加하고 있다(Huber, Spitze 1980). 이에 따라서 夫婦간의 結婚適應은 어떤 면에서는 전보다 더 어려워졌으며 그 破綻에 作用하는 危機도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家族의 安定性 與否를 檢討하기 위하여는 成功的인 家族과 緊張狀態下의 가족집단 내에서의 夫婦關係 및 適應樣式 등을 考察해 보는 것이 必要하다(한남제 1984, 185). 이와함께 結婚의 영속성에 대한 意志를 뜻하는 離婚態度에 관한 研究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結婚에 대한 評價基準은 幸福과 安定性으로 대별되며(유영주 1985, 162), 結婚安定性의 指標로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를 들 수 있다.

그러나 離婚態度에 관한 研究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와의 關係를 밝힌 研究 또한 別無한 상태이다. 따라서 韓國家族의 不安定性 要因을 具體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실증적 資料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앞으로 이에 관한

理論的 展開을 爲해서는 實證적인 研究資料가 充分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結婚滿足도의 離婚態度와의 實證적 研究를 통하여 이에 關한 基機資料를 제공하고자 한다.

2) 研究目的

本 研究에서는 離婚에 對한 태도와 結婚滿足도를 結婚安定性的의 指標로 사용하고자 한다.

本 研究의 具體的 目的은;

첫째, 都市主婦들의 結婚滿足의 실태와 結婚滿足의 關聯變因을 糾明하는데 있다.

둘째, 都市主婦들의 離婚態度의 一般的 傾向과 離婚態度를 통해 結婚의 安定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糾明하고자 한다.

셋째,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와의 實證적 研究를 통하여 離婚의 豫防 및 結婚安定성에 對한 部分的인 理論定立의 기초資料를 提供하는데 궁극적인 目的이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結婚滿足度

(1) 結婚滿足의 概念

結婚의 滿足, 幸福, 適應, 成功, 質 등의 用語에 對한 概念을 명확히 하고자 最近에 直接的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왔으나(Lively 1969; Hicks and Platt 1970; Burr 1973; Spanier and Cole 1976; 김혜선 1982a), 學者間에 概念의 一致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本 研究에서는 一般的인 概念으로서 結婚滿足도를 채택하고자 한다. 結婚滿足은 一男一女의 두 成人이 상호 보완적으로 物理的·心理的·社會的 欲求를 充足시킴으로써 얻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滿足에 關한 定義는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Burr, Constantine etc, 1979). 즉

滿足이란 '한 個人의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은 補償 사이의 一致의 정도'라는 立場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滿足을 '主觀적으로 經驗되어진 滿足과 不滿足, 幸福과 不幸, 즐거움 대 슬픔지 않음의 現象'이라고 보는 것이다.

後者의 立場에서 Hawkins(1968)는 結婚滿足度란 '夫婦가 結婚生活 全般에서 經驗하는 즐거움·幸福·滿足 등의 주관적 感情의 程度'라고 定義하면서, 매우 '滿足'에서 매우 '不滿足'까지의 連續的인 차원에서 把握된다고 하였다.

또한 Lewis와 Spanier (1979, 269)는 結婚滿足·幸福·意思疏通·適應 등의 概念을 包括하여 '結婚의 質' 概念을 提示하였으며, 結婚의 質은 結婚한 배우자 關係에 對한 주관적인 評價로 定義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結婚滿足度란 結婚生活 전반에 對한 夫婦의 幸福과 滿足에 對한 주관적 感情이며 일종의 態度로서(유영주 1985, 162) 항상 變化하는 動的인 概念이라고 定義하고자 한다. 한편 結婚滿足도를 測定하는 方法은, 應答者의 주관적 結婚滿足도를 直接的으로 測定하는 方法과 結婚生活의 다영역적 측면에서의 滿足도를 各各 算出하여 全體點數를 合하여 總체적 結婚滿足도를 測定하는 間接的 測定方法이 있다.

學者別 結婚滿足 領域區分에 의하면, Landis (1968)는 性·愛情問題·社會活動·親戚關係·宗教·同僚關係·子女養育으로, Burr(1970)는 재정문제·社會活動·가사작업·동료감·性·子女養育, Spanier(1976)는 애정표현·夫婦間 의견일치·결속력·만족도의 4개 領域으로 區分하였다.

또 김명자(1977)는 동료감·성격적응·성생활·子女關係·經濟·자아개념·健康·여가활동·가사협조·住宅關係의 10個 要因으로, 유영주(1979)는 經濟活動·社會活動·生活態度·子女養育·愛情 및 性·가사처리·친척관계·성격 등에 對한 滿足으로 區分하였다.

(2) 結婚滿足度와 關聯變因

60年代의 研究는 教育水準·收入·年齡과 같은 客觀的 要因이 結婚滿足度와 많은 關聯이 있다고 했으나, 다원적 分析統計方法을 使用한 70年代의 研究는 客觀的 要因이 結婚滿足度와 關聯이 거의 없거나, 약하다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김혜선 1982, 27). 그러나 關聯變因에 대한 研究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본 研究에서는 결혼만족도의 關聯變因으로서, 子女數·結婚持續年數·婦人의 教育水準·收入·婦人의 職業有無·結婚形態·父母의 結婚幸福度 등 7가지를 설정하였다. 결혼만족도와 자녀수를 關聯시킨 研究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子女數의 증가에 따라 婦人의 結婚滿足도가 감소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유은희 1974, 유영주 1979, 이옥진 1982). 그 理由는 子女數가 많다는 것은 夫婦의 經濟的·心理的 負擔이 되고, 自由롭게 活動할 수 있는 機會가 적어지기 때문에 結婚滿足도는 減少한다고 한다(Troll, Miller, Atcheg 1980, 310). 따라서 子女數는 結婚滿足도에 影響을 미치는 重要變因이라고 할 수 있다.

結婚持續年數와 結婚滿足度の 關係研究는 그 一貫性을 보이지 않고 있다. Figley(1973)·Spanier et al(1975)·Orthner(1975) 등의 조사에서는 결혼지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다가 진수기 이후 다시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김명자(1977)·유영주(1979)의 研究結果는 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研究에서는 결혼지속연수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沙려되어 變因으로 擇하였다.

婦人의 教育水準은 結婚滿足도와 대체적으로 正的 相關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재석(1982)·이동원(1981)·김명자(1977)·유영주(1979)의 研究는 婦人의 教育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結婚生活에서 重要的 心理的 變因이 物理的 變

因보다 優位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經濟的 變因의 重要性도 무시될 수 없으므로 收入을 關聯 變因으로 擇하였다. 婦人의 職業과 結婚滿足度와의 關係 研究는 一貫性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職業女性의 大部分이 專門職보다 單純勞動職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또한 家事는 主부에 의해 管理되어야 한다는 意識으로 家事 役割分擔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狀況에서 婦人의 職業유무가 결혼만족도와 어떤 關係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變因으로 設定하였다.

한편, 解放이후 西歐文明의 導入과 더불어 오늘날 韓國社會의 結婚形態는 중매결혼에서 연애결혼으로의 傾向이 增加하고 있다. 따라서 結婚形態 또한 結婚滿足도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 影響變因으로 보았다.

社會學習理論에 의하면 家庭은 子女들에게 結婚生活에서의 役割과 價値를 학습하도록 그 모델을 提示하는 場所이다. 따라서 父母의 結婚生活에서 학습한 結婚의 형태는 기억속에 저장되었다가 子女의 結婚生活의 안내자가 된다(Bandura 1971)고 하였다. 따라서 父母의 結婚幸福도는 結婚滿足도와 關聯變因으로 沙려된다.

2) 離婚態度

(1) 離婚 및 離婚態도의 概念

離婚이란 生存 배우자간에 있어서 그들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재판상의 節次를 거쳐서 婚姻關係를 解消시키는 方法이다(유영주 1985, 293). 이것은 夫婦關係를 人위적으로 消滅시킨다는 점에서 夫婦 일방의 死亡에 의한 婚姻의 自然的 解消와는 다르다(김혜선 1982 b, 99). 본래 婚姻은 夫婦가 死亡할 때까지 共同生活을 할 것을 目的으로 한 것이므로 當事者의 生存중에 그 結合關係를 해소하는 것은 병리적인 現象이며, 家族의 安定과 個人의 幸福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므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人間의 努力과 能力에는 한계가

있고, 結婚이 存在하는 한 離婚도 存在하게 마련이다, 오늘날 離婚에 대한 見解가 더욱 더 許容的이 되어가고 있는 傾向이다.

Goode(1964, 191)는 離婚은 夫婦中의 한 쪽, 혹은 모두에게 個人的인 불운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혼인 자체가 갖는 불가피한 緊張의 탈출구로서, 하나의 社會制度로 看做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한남제(1984, 81)는 離婚은 家族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可能的한 하나의 解決方法이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견해는 離婚의 必要性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外國의 離婚率에 비해 우리나라의 離婚率은 낮은 편이나, 최근 離婚率이 계속 增加하고 있는바, 그 增加要因은 다음과 같은 側面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離婚觀 自體의 變化를 들 수 있다.

둘째, 産業化·都市化로 인한 家族制度의 變化를 들 수 있다.

셋째, 女性의 經濟的 獨立 즉 女性의 就業機會 增大는 과거 女性에게 남편에 대한 굴종을 拒否하고 同等한 人格의 地位를 要求하게 되었으며, 自活能力이 增大됨으로써 離婚을 쉽게 考慮하게 되었다.

넷째, 離婚의 法制的 變化를 들 수 있다.

離婚態度란 家族價値觀의 일부분인 離婚에 대해 個人이 指向하는 規範 및 價値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때 規範이란 個人의 행동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행동유형에 따른 合理性을 부여하고 行動指向의 指針과 근거를 提示하는 것이 價値觀이라고 한다면, 離婚態度는 個人에게 離婚에 관련된 행동유형을 決定하는 지침과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規範 및 價値觀은 時代的으로나 社會的인 여러 相互作用의 과정속에서 變容되므로 그 內容도 多樣하며 일정하지 않다. 또 個人이 認知하고 있다하여도 그것에 一致되는 行動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으나 價値觀과 行動사이에 一貫性을 유지하려는 心理的 原理가 作用한다고 볼 수 있다.

家族의 不安定性은 離婚·유기·별거·지속적인 葛藤等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어떤 종류의 結婚이 성공적이고 또는 실패하는 것인가를 決定하는데 대한 생각이 모두 相異하므로, 結婚成功의 基準 혹은 測定方法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E Burgess, P Wallin). 別居·離婚현상이 家族의 不安定性을 나타내는 가장 客觀的 指標이기는 하나, 이것은 社會的 압력이나 의무감 때문에 空虛한 夫婦關係를 持續하고 있는 結婚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 別居나 離婚은 結婚不安定性의 結果이므로, 結婚不安定性의 間接的인 測定方法으로 離婚態度를 變因으로 정할 수 있다.

(2) 離婚態度와 關聯變因

본 研究에서는 이미 離婚과 關聯있는 變因으로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變因을 離婚態度와의 關聯變因으로 선정하였다.

離婚自由主義 態度와 子女數를 관련시킨 Jorgensen, Johnson(1980)의 연구에 의하면 子女의數는 婦人의 離婚自由主義的 態度에 影響을 미친다고 하며, 더구나 자발적으로 子女를 갖지 않은 婦人의 경우 離婚自由主義 態度는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子女의 存在가 離婚장벽으로서 作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Levinger 1965). 따라서 子女數는 離婚態度와 관련있는 영향변인으로 보았다.

結婚持續年數는 婦人의 경우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ooth, White 1980; Huber, Spitze 1981), 실제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생활기간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3년 이내 離婚한 경우가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며, 結婚期間이 增加함에 따라 離婚率은 줄어들어 15年以上 結婚生活을 한 경우의 이혼은 극히 적은

편이다(최재석 1982, 371). 그러므로 結婚持續年數는 離婚과 관계있는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教育水準과 離婚과의 관계연구에 의하면, 이혼은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많이 행해지나(김혜선 1982 b, 105), 이혼제기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妻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처가 이혼을 제기하는율이 높았다(최재석 1982, 372-375). 教育水準이 收入의 主要決定要素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婦人의 教育水準이 높을 경우, 配偶者 選擇時 男便의 教育水準도 이와 비슷하거나 높은 配偶者를 選擇하게 됨으로 離婚態度는 더욱 허용적이라 하더라도 收入이 媒介役割을 함으로써, 실제 離婚이란 行動은 教育水準이 낮은 층에서 많이 된다.

收入과 離婚은 실제 離婚夫婦를 對象으로한 研究에 의하면 下層으로 내려갈수록 離婚率이 높았다(Goode 1964, 166, Yoder, Nichols, 1980). 그 이유는 하류층 夫婦는 經濟的인 問題에서 비롯된 不和를 夫婦生活의 영역으로 확대시킬 可能性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離婚에 대한 態度는 上流層 사이에서 좀 더 自由主義的인 것 같으나, 社會關係의 연결망과 친족관계의 연결망이 보다 광범하고 安定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婚姻破綻은 下流層에 비해 적다(Goode 1964, 183-185).

女性의 就業과 離婚傾向과는 正的關係에 있으며 就業婦人의 結婚不安定性이 非就業婦人에 비해 높은 것으로 유의차가 나타났다(Booth, Johnson, Edwards 1983, 391).

이는 自立할 수 있는 정도의 經濟力이 있는 女子라면 傳統社會의 女性처럼 굴욕적인 대우를 감수하면서까지 結婚生活를 持續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婦人의 職業유무를 이혼태도의 주요 영향변인으로 보았다.

서울가정법원 統計에 의하면(이태영 1968, 86), 離婚한 者 중 仲媒結婚 63%, 戀愛結婚 34%이며, 1963~1965年의 서울 가정법원에 離婚調整을 申請한 者 중 그 結婚形態가 分명한 자에 대한 調

査結果는 仲媒結婚 74%, 戀愛結婚 26%, 가정법 들상담소 8주년 相談資料 統計에 의하면 仲媒結婚 67%, 戀愛結婚 33%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형태와 이혼태도는 관련변인으로 사려된다.

父母의 結婚幸福도와 이혼태도의 관계연구에 의하면, 解體家族의 기혼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家庭의 子女보다 더 離婚可能性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離婚의 世代轉移(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는 女性들 사이에서 특히 뚜렷하다고 한다(Pope, Muller, 1979). 또 家族의 離婚 經歷史는 離婚自由主義와 正的 相關關係에 있다고 하였다(Jorgensen, Johnson, 1980).

이상의 7가지 변인 즉 자녀수·결혼지속연수·부인의 교육수준·수입·부인의 직업유무·결혼형태·부모의 결혼형태를 이혼태도의 관련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

結婚生活의 指續과 破綻을 研究하는 學者들의 접근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結婚의 安定性'에 重點을 둔다.

두번째 접근방법은 結婚關係가 完全할 때의 結婚의 質'에 力點을 두는 것이다(Lewis, Spanier 1979, 268). 따라서 離婚自由主義와 이와 相關關係에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은 結婚不安定性을 예측하는데 매우 有意的이라고 할 수 있다.

離婚自由主義의 概念은 이혼의 반대에서 부터 이혼에 대한 찬성에 이르기까지의 態度의 연속체로서 정의된다.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와의 關係는 다음 이론의 構造的 側面을 기반으로 성립한다(Jorgensen, Johnson 1980, 617-625). 그 하나는 Festinger(1957)와 Heider에 의해 구성된 인지적 부조화이론으로서, 이 理論에 따르면 個人이 信念·感情 또는 認知나 行動 면에서 일치상태를 維持하려고 努力하나, 不一致가 생겼을 경우, 個人에게 心理的 不

조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부조화는 행동의 변화·
신념의 수정 또는 새로운 정보를 추구함으로써 인
식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努力하도록 자극한다.

인지적 부조화 이론은 結婚滿足과 結婚安定性
이 강한 正的 相關이 있다는 것을 肯定한다. 즉
結婚에 不滿足한 사람은 자신이 실제 認知하는 結
婚과 結婚自體에 대한 自身の 신념과 일치하지 않
기 때문에, 인지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結婚緊
張의 서투른 해결책으로 離婚을 考慮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結婚에 滿足하고 있는 사람은 結婚緊張을
解決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離婚을 반대함으로써
인지적 一致狀態를 維持하고자 추구할 것이다. 따
라서 結婚滿足도가 낮을수록 離婚에 대한 態度는
더욱 自由主義의 일 것이라는 假說的 理論이 成立
된다. 結婚生活의 質 指數는 結婚生活의 安定성과
깊은 相關 關係가 있다는 證據가 있으나 (Spanier
1976; Dean and Lucas 1974), 낮은 結婚의 質이 반
드시 離婚·別居·유기에 대한 높은 性向을 意味
하는 것은 아니다 (Landis 1963). 一般的으로 結婚
의 質이 낮은 夫婦도 원래 狀態(intact)로 있는 반
면, 結婚의 質이 높은 경우에도 終結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現象은 인지적 부조화 理論과는 모
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적 부조화 理論의 부분적 모순을
보충해 주는 理論으로서 社會交換理論을 導入한
다.

이 理論의 基本原理는 相互作用 속에 있는 사
람들은 최적의 結果를 얻기 위해서 費用의 최소
화·補償의 최대화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다.

Levinger(1965)는 離婚에 대한 自由主義的 態度
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론적 根據를 提示하기 위한
'障壁' 關係의 概念을 導入함으로써 社會交換 理
論의 原理를 정교화하였다. Levinger 에 의하면
(1965, 19), 結婚의 결속력은 結婚의 魅力과 障壁의
直接的 기능과의 關係에 있다.

子女의 存在·離婚을 反對하는 宗教的 처방과 같
은 結婚을 둘러싼 充分한 障碍要素가 있다면 結婚
에 대한 魅力이 부족하거나 結婚 外의 魅力의 代
案이 부족하더라도 結婚은 滿足感없이 安定될 것
이다. 그러나 結婚을 둘러싼 障壁도 없고 魅力도
없는 結婚은 不安定하며 結局은 解體될 것이다.

離婚에 대한 保守的인 態度는 結婚凝集力과 安
定성에 대한 障碍要素로서 概念化될 수 있다. 왜
냐하면 離婚에 대한 保守的 態度는 結婚解體를 반
대하는 힘으로 作用하기 때문이다 (Jorgensen, Jo
hnson 1980). 그러나 結婚生活의 安定성을 說明하
는데 이러한 역변인의 影響을 無視하고 結婚生活
의 安定성에 대한 가장 중대한 하나의 豫測要因
이 結婚의 質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結婚한 夫婦
들 중에서 結婚의 適應滿足도·幸福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사람들이 結果적으로 別居나 離婚을 가
장 잘 하는 것 같다 (Lewis, Spanier 1979).

Ⅲ. 研究假說設定

以上에서 살펴 본 關聯研究에 의하면 結婚滿足
도와 離婚態度에 關聯되는 變因으로 子女數·結
婚持續期間·教育水準·收入·婦人の 職業有無·
結婚形態·父母의 結婚幸福도의 7個 變因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 變因이 結婚滿足도와 離婚
態度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지를 糾明하고자 한
다. 또한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와의 關係는 理
論的 背景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認知的 不調和
理論과 社會交換理論에 입각하여 結婚滿足도 水
準에 따라서 離婚態度에 差異가 있는지를 糾明하
고자 한다.

本 研究의 問題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假說을 設定하였다.

[假說 1]: 結婚滿足도는 關聯變因(子女數·結
婚持續年數·婦人の 教育水準·收入·婦人の 職業

有無·結婚形態·父母의 結婚幸福度)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假說 2]: 離婚態度는 關聯變因(子女數·結婚持續年數·婦人의 教育水準·收入·婦人의 職業有無·結婚形態·父母의 結婚幸福度)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假說 3]: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는 어떤 關係를 갖고 있을 것이다.

(3-1):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는 相關關係에 있을 것이다.

(3-2): 結婚滿足度 水準에 따라 離婚態度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假說 4]: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의 一致程度에 따라 結婚安定性을 類型化할 수 있을 것이다.

IV. 研究方法 및 節次

1) 測定道具

(1) 結婚滿足度

結婚滿足度 測定은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를 기초로 하되, 한국의 文化的 背景에 적합하지 않은 問項을 일부 削制,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30개 문항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문항의 內容에 따라 4점 또는 5점 Likert 尺度로 점수화하였다. 만족의 정도가 낮으면 1점에서 만족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1점씩 加算하는 方式을 適用하였다. 결혼만족도의 영역구분은 因子分析(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기본적인 變因群을 추출해내서 이를 根幹으로 하여 結婚滿足度の 特定領域을 構成하였는데, 分析 結果, 固有值(eigen value)가 1.0 이상인 要因이 7개로 나타났다. 즉 配偶者에 대한 滿足度(S₁) 結婚의 安定性(S₂) 夫婦間의 意見一致(S₃) 同僚感(S₄) 夫婦關係의 葛藤(S₅) 親戚과의 不調和(S₆) 葛藤 解決方法(S₇)의 7개 요인을 결혼만족도의 하

위영역으로 構成하였다.

(2) 離婚態度

離婚態度 尺度는 이혼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의 原因을 규명한 최재석(1982), 이동원(1981), 차명희(1982), 한남재(1968)의 연구와 Burns(1984), 그리고 Jorgensen 등(198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本研究의 目的에 맞도록 研究者 自身이 尺度를 開發하여 使用하였다.

이혼태도는 20개 問項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Likert 尺度로 점수화하였다. 이혼을 수긍하는 許容的 態度일 때 1점에서부터 이혼을 절대 否定하는 態度의 5점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혼태도의 下位尺度는 因子分析(Factor Analysis)을 통해 固有值(eigen value)가 1.0 이상인 5개 要因을 추출하여 이혼태도의 下位尺度로 構成하였다. 客觀的 不安定性(D₁) 夫婦生活의 緊長(D₂) 經濟的 緊張(D₃) 家族關係의 不調和(D₄) 結婚의 永續性(D₅)의 5개 요인을 이혼태도의 하위영역으로 構成하였다.

(3) 測定道具의 信賴도와 妥當度

本研究에서 使用한 測定道具의 信賴度는 항목간의 內的合致度法(Internal Consistency Method)에 의한 信賴度係數(Cronbach's α)를 산출한 結果, 結婚滿足度 尺度의 信賴度는 $\alpha = .79$ 이었고 離婚態度 尺度의 信賴度는 $\alpha = .75$ 이었다.

2) 測定對象

本研究의 對象은 서울시에 居住하는 家庭으로서, 研究의 性格上 外型的으로 파괴되지 않은 가족의 主婦를 對象으로 하였다. 質問紙의 기재는 自答式으로 주부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결혼생활의 深層的 側面的 露出을 요하는 질문지의 內容으로 인하여, 應答하지 않은 가정, 不實記載한 질문지가 많아 총 500部中 354部만이 최종 研究對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354)

구분		f	%
자녀수	없음	11	3.1
	1명	37	10.5
	2명	137	38.7
	3명	112	31.6
	4명이상	57	16.1
지속기간	5년이하	43	12.1
	6~15년	148	41.7
	16~25년	139	39.4
	26년이상	24	6.8
부교수의 육준	중졸이하	78	22.0
	고졸	150	42.4
	대졸이상	126	35.6
가속입	40만원이하	81	22.9
	41~70만원	139	39.3
	71~150만원	112	31.6
	150만원이상	22	6.2
부취업의 의무	유	73	20.6
	무	281	79.4
결혼형태	연애결혼	226	63.9
	중매결혼	128	36.1
부결혼의 의혼도	행복	163	46.1
	보통	153	43.2
	불행	38	10.7

象으로 採擇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資料蒐集 및 統計處理

(1) 資料蒐集

本 研究는 豫備調査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適合하지 않은 것으로 思料되는 問項의 일부를 修正·補完하여 1985年 9月 16일부터 9月 21일까지 本 調査를 실시하였다.

調査方法은 主婦 年齡의 分散의 分布를 고려하

표 2.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의 일반적 경향

		f	%		
결만족	매우 만족	51	14.4	M : 1.937	SD : 1.246
	보통	254	71.8		
이혼태도	매우 불만	49	13.8	M : 2.145	SD : 1.221
	부정적태도	54	14.9		
이혼태도	중립적태도	242	68.4		
	허용적태도	59	16.7		

여 多段階 類層標集을 하였다. 質問紙의 配付는 幼兒院(1), 國民學校(2), 高等學校(2), 大學校(1) 學生들을 통하여 어머니가 직접 記入하도록 한 후 回收하였다. 총 500部中 413部가 回收되었으며, 이中 不實記載된 것을 제외한 354部를 分析資料로 使用하였다.

(2) 統計處理

本 研究의 資料分析을 위하여 利用된 分析方法은 백분율·빈도분포·산술평균·일원변량분석 및 인자분석·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등의 통계적 방법으로 한양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V. 結果 및 解釋

1) 結婚満足도와 離婚態度의 全般的인 傾向

結婚満足도와 離婚態度의 全般的인 傾向을 把握하기 위해 頻度分布와 百分率을 산출하였고, $M \pm SD$ 를 基準으로 하여 各各 세 집단으로 區分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같이 結婚満足도가 높은 집단이 14.4%이며, 보통 정도로 滿足하고 있는 集團이 71.8%, 結婚満足도가 매우 낮은 集團은 13.8%였다. 結婚満足도가 낮은 集團에 비해 満足도가 높은 集團이 약간 많다.

離婚態度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集團이

표 3. 관련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인	구분	결혼만족도에 따른 관련변인									
		(S1) 배우자애 대안만족감	(S2) 결혼의 안정성	(S3) 부부간의 의견일치	(S4) 동 료감	(S5) 부부관계의 등감	(S6) 친척과의 부조화	(S7) 갈등해결 방법	총체적 결혼만족도 (S)		
자녀수	없음	0.58	0.14	-0.20	0.77	1.71	-0.26	-0.07	2.67		
	1명	-0.27	-0.21	-1.02	-0.03	0.89	-0.52	0.36	-1.51		
	2명	-0.33	-0.30	-0.92	-0.02	0.83	-0.41	0.23	1.40		
	3명	-0.31	-0.32	-0.97	-0.05	1.13	-0.30	0.32	1.14		
	4명이상 F 값	-0.57 2.651*	-0.57 1.482	-1.24 2.936*	-0.14 1.714	0.80 2.185	-0.41 0.439	0.40 1.297	2.53 2.925*		
결혼연수	5년이하	0.13	-0.12	-0.75	0.34	1.07	-0.34	-0.38	0.03		
	5~15년	-0.41	-0.27	-0.98	-0.12	0.99	-0.45	0.23	-1.49		
	16~25년	-0.34	-0.42	-1.00	0.00	0.93	-0.32	-0.35	-1.55		
	26년이상	-0.57	-0.49	-1.24	-0.28	0.65	-0.29	0.40	-2.39		
	F 값	3.240*	1.281	1.324	2.469	0.638	0.488	-1.401	1.393		
교육수준	중졸이하	-0.35	-0.28	-0.97	0.01	0.82	-0.24	0.28	1.29		
	고졸	-0.52	-0.41	-1.03	-0.19	0.90	-0.48	0.33	2.06		
	대졸이상	-0.09	-0.27	-0.91	0.16	1.10	-0.36	0.26	0.63		
	F 값	5.437**	0.760	0.519	3.627*	1.515	1.447	0.434	3.097**		
	40만원이하	-0.66	-0.60	-1.10	-0.27	0.83	-0.48	0.39	-2.66		
41~70만원	-0.24	-0.26	-0.86	0.07	0.90	-0.35	0.20	-0.96			
71~150만원	-0.26	-0.23	-1.02	-0.01	1.13	-0.38	0.29	1.07			
150만원이상	0.02	-0.24	-1.03	0.23	0.89	-0.25	-0.58	0.96			
F 값	3.705*	2.433	1.126	2.134	1.106	0.404	3.367*	2.541			
직업유무	유	-0.28	-0.36	-0.99	0.08	0.99	-0.68	0.27	-1.50		
	무	-0.34	-0.32	-0.97	-0.05	0.94	-0.31	-0.30	-1.35		
	F 값	0.226	0.087	0.023	0.872	0.100	8.067**	0.162	0.056		
결혼형태	연애결혼	-0.27	-0.33	-0.94	-0.06	0.95	-0.48	0.30	1.42		
	중매결혼	-0.44	-0.33	-1.03	0.03	0.97	-0.21	-0.29	-1.32		
	F 값	2.094	0.001	0.660	0.485	0.024	5.577*	0.003	0.039		
부모의 결혼행복도	행복	-0.03	-0.10	-0.80	0.18	1.01	0.22	-0.28	0.24		
	보통	-0.53	-0.42	-1.07	0.08	0.98	-0.41	0.28	-1.81		
	불행	-0.84	-0.90	-1.36	0.67	0.62	0.96	-0.49	4.55		
F 값	13.658***	11.009***	6.651**	10.246***	1.558	8.563***	1.058	14.536***			

* p < .05

** p < .01

*** p < .001

14.9%이고, 중립적 태도가 68.4%, 허용적 태도를 갖춘 集團이 16.7%이다. 許容的 離婚態度를 갖춘 사람이 否定的 離婚態度를 갖춘 사람보다 약간 많은 傾向을 보인다. 이와 같이 許容的 結婚態度가 否定的 離婚態度를 갖춘 사람보다 약간 많은 比率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사실로 이는 離婚態度의 分명한 變化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가설 1의 검증결과 및 해석

관련변인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을 F검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각 변인별로 F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子女數에 따른 結婚滿足도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영역(S₁)과 부부간의 의견일치영역(S₃)에서 유의차를 보이며, 총체적 결혼만족도 역시 유의차를 나타냈다. 子女가 없는 경우의 結婚滿足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子女出產 및 양육단계에 있는 夫婦는 子女가 없는 부부보다 結婚適應도가 낮다고 한 研究結果와 일치한다(Rollins and Cannon 1978; Campbell et al 1976).

本 研究의 표집대상 중 子女가 없는 경우의 주부들의 結婚期間이 거의 2年未滿인 것으로 보아 新婚期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子女가 家庭에서 중요한 存在임을 인식할 때, 불임이나 기타요인으로 인하여 子女가 없는 경우의 結婚滿足도가 어떠한 傾向을 보일지 本 研究로서는 把握되지 않았다. 또한 子女의 數가 1名 증가할 때 마다 結婚滿足도는 약간의 감소경향을 보이다가 4名 以上일 경우 結婚滿足도가 급격히 하강하는 傾向을 보였다.

結婚持續年數에 따른 結婚滿足도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영역(S₁)에서만 有意한 差를 보였다. 結婚持續期間이 짧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滿足感이 높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下位領域에서는 有意差를 보이지 않는다.

表 3에 제시된 바, 婦人의 教育水準에 따라 結婚滿足도가 有意味하게 나타난 領域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영역(S₁)과 동료감 영역(S₄)이다.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夫婦間의 동료감에 대한 滿足이 증가하는 것이 特徵的이다. 婦人의 教育水準에 따른 총체적 結婚滿足도는 p < .05水準에 肯定되었다. 이는 金明子(1977), 유영주(1979), 이동원(1981), 최재석(1982)의 研究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收入에 따른 총체적 結婚滿足도는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領域別로는 部分的으로 肯定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영역(S₁)과 갈등해결방법 영역(S₇)에서 각각 p < .05水準에서 有意味한 差異를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側面에서 解釋이 可能하다. 즉 수입의 증가는 부인이 남편을 有能한 扶養者로 인지하게 됨에 따라(Jorgensen 1979), 배우자에 대한 滿足感을 증가시킨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滿足感이 적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부들은 남편이 經濟的인 뒷받침만 충분히 해준다면 일단은 結婚生活에 滿足을 느끼고, 子女나 친구 및 기타 다른 生活속에서 남편으로부터의 滿足感에 代置할 수 있는 滿足感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이동원 1981, 221). 또한 有意差를 보이는 갈등해결방법 영역(S₇)은 表 3과 같이 41만원 ~ 150만원 사이의 中類層에서는 滿足도가 높은 편이나, 40만원 이하의 가정과 150만원 이상의 家庭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中類層은 夫婦關係가 민주적 유형을 하류층과 상류층에서는 지배적 우위유형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婦人의 직업유무에 따른 結婚滿足도는 친척과의 부조화영역(S₆)에서만 p < .01水準에서 肯定되었다(F = 8.067). 就業婦人의 경우 非就業婦人에 비해 친척과의 不調和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本 調査에서는 媳父母와의 同居與否를 關聯變인으로 採擇하지 않았으므로, 媳父母와의 不和의 탈출구로서 就業를 더욱 고수하는 것인지, 아니

표 4 관련변인에 따른 이혼태도

구 분		객 관 적 불안정성 (D1)	부부생활의 긴 장 (D2)	경 제 적 긴 장 (D3)	가족관계의 부 조 화 (D4)	결 혼 의 영 속 성 (D5)	전 반 적 이혼태도 (D)
자 녀 수	없 음	-.02	-.046	0.41	0.07	-.034	-.033
	1 명	0.20	-.001	0.44	0.42	-.015	0.90
	2 명	0.55	0.27	0.31	0.37	-.005	1.55
	3 명	0.78	0.13	0.29	0.36	-.003	1.60
	4명이상	0.68	0.23	0.24	0.28	-.001	1.44
	F 값	2.342	1.170	0.292	0.341	0.498	0.789
결 혼 연 수	5년이하	0.22	-.007	0.41	0.30	0.30	0.56
	6~15년	0.53	0.16	0.34	0.29	0.12	1.44
	16~25년	0.69	0.22	0.27	0.40	0.03	1.62
	26년이상	0.99	0.34	0.22	0.50	-.032	1.72
	F 값	2.534	0.763	0.372	0.508	2.308	0.826
부 인 의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0.86	0.40	0.18	0.43	0.29	2.16
	고 졸	0.60	0.07	0.28	0.30	-.005	1.20
	대졸이상	0.41	0.15	0.43	0.35	-.010	1.23
	F 값	3.236*	1.876	1.779	0.376	3.266*	1.753
수 입	40만원이하	0.56	-.002	0.06	0.30	0.09	0.98
	41~70만원	0.62	0.23	0.36	0.35	-.002	1.53
	71~150만원	0.50	0.16	0.41	0.33	-.006	1.35
	150만원이상	0.91	0.51	0.47	0.59	0.20	2.67
	F 값	0.701	1.307	2.716*	0.495	0.495	1.112
부 인 의 직 업 유 무	유	0.43	0.02	0.26	0.29	-.006	0.94
	무	0.63	0.20	0.33	0.36	0.02	1.54
	F 값	1.484	1.235	0.338	0.331	0.265	1.345
결 혼 형 태	연애결혼	0.49	0.11	0.29	0.33	-.001	1.20
	중매결혼	0.76	0.27	0.35	0.38	0.04	1.80
	F 값	3.847	1.401	0.398	0.204	0.188	1.886
부 모 의 결 혼 행 복 도	행 복	0.74	0.17	0.39	0.41	0.03	1.75
	보 통	0.49	0.19	0.24	0.29	0.00	1.21
	불 행	0.33	0.06	0.28	0.30	-.009	0.88
	F 값	2.476	0.157	1.114	0.558	0.193	1.124

* p < .05

** p < .01

*** p < .001

면 직장생활로 인하여 가정생활 및 친척관계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시부모와의 관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인즉 그 因果的 關係를 주장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에 關聯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취업부인은 비취업부인에 비해 결혼의 안정성영역(S_2)과 부부간의 의견일치영역(S_3) 및 부부관계의 갈등 영역(S_5)에서 滿足度 水準이 낮았다. 婦人의 就業은 經濟的 自立을 뜻하는 것으로, 부부관계의 不和가 생기게 되면 非就業婦人에 비해 離婚 등을 빈번히 고려하게 됨으로써 결혼의 안정성 영역 및 부부관계의 갈등영역의 滿足度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과 같이 結婚形態에 따른 結婚滿足度는 친척과의 부조화 영역(S_6)에서만 유의적($F=5.577$, $p<.05$)이었으며, 총체적 結婚滿足度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애결혼의 형태가 중매결혼의 형태보다 더욱 친척과의 부조화 정도가 높은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結婚은 結婚當事者만의 愛情의 結合關係가 아닌, 家系와 家系의 結合이란 意味가 더욱 크기 때문에 아닌가 思料된다. 연애결혼의 경우 중매결혼의 家庭보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영역(S_1)과 부부간의 의견일치 영역(S_3), 그리고 부부관계의 갈등영역(S_5)에서는 滿足度가 약간 높은 경향을 띠고 있다.

父母의 結婚幸福度에 따른 結婚滿足度는 배우자에 대한 결혼만족도(S_1), 결혼의 안정성(S_2), 동료감(S_4), 친척과의 부조화(S_6)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총체적 결혼만족도 역시 $p<.001$ 水準에서 肯定되었다. 이는 Terman(1983), Burgess와 Cottrell(1939), Locke(1951), 이옥진(1982), 한남세(1984)의 研究結果와 一致하는 것이다. 따라서 父母의 結婚幸福度는 子女의 結婚滿足度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豫測變因이라고 하겠다. 家族의 基本的인 機能 중의 하나는 子女의 퍼스널리티 형성이기 때문에 成功的인 結婚生活을 영위

하는 가족에서는 子女들이 圓滿한 퍼스널리티를 發展 可能性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남세, 1984:205).

3) 가설 2의 검증결과 및 해석

관련변인에 따라 이혼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F검증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정되었다. 그러나 각 변인에 따라 하위척도가 부분적으로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子女數에 따른 離婚態度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이혼태도(D)는 子女數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큰 差異를 보이지 않으나, 子女의 存在有無에 따라 뚜렷한 態度의 變化를 보인다. 대체로 子女가 없는 가정의 주부는 離婚에 許容的인 態度를 보이며, 子女가 있는 가정의 주부는 子女數에 관계없이 이혼에 대해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Levinger(1965, 19)에 의하면, 子女의 存在는 結婚障壁(barrier)의 한 요소로서, 결혼에 대한 특별한 매력이 부족하더라도 결혼은 滿足없이도 안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표 4와 같이 結婚持續期間에 따른 離婚態度는 F검증 결과 全般的인 이혼태도(D) 및 하위영역에서도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結婚의 不安定性을 야기시키는 음주·폭력·정신적 학대·이성 관계·유기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 불안정성 영역(D_1)과 인격적 부조화·성·애정의 상실로 인한 부부생활의 긴장영역(D_2)은 結婚持續年數가 짧을수록 이혼에 許容的 態度를 보이는 반면 결혼지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否定的 離婚態度를 갖는 경향이다. 그러나 全般的인 이혼태도(D)는 결혼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離婚에 否定的인 態度를 갖는다.

婦人의 教育水準에 따른 이혼태도는 객관적 불안정성영역(D_1)과 결혼의 영속성영역(D_5)에서만 $p<.05$ 水準에서 意味있는 差를 보인다. 객관적 불안정성영역(D_1) 및 결혼의 영속성영역(D_5)은 教

育水準이 낮을수록 이혼에 否定的 態度를 보이며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許容的 態度를 갖는다.

홍승직(1969)은 韓國社會는 傳統的 價値觀과 近代的 價値觀이 병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年齡이 낮을수록, 教育정도가 높을수록, 상류층으로 갈수록 傳統에서 탈피하려는 의욕을 強力히 표현한다고 한다. 따라서 높은 教育水準의 婦人은 近代的 價値觀을 가지므로 離婚에 대해 더욱 許容的 態度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한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收入에 따른 全般的인 이혼태도는 意味있는 差를 보이지 않았으며, 경제적 긴장영역(D₂)에서만 p < .05 水準에서 肯定되었다. 경제적 긴장영역(D₂)은 低所得層 가정의 경우 高所得層 가정에 비해 이혼에 더욱 許容的인 態度를 보인다. 이것은 物質的인 價値가 社會에 널리 보급되어 있고 經濟的 收入이 社會階層에 따라 均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社會에서는 하류계층일수록 경제적 긴장이 수반될 可能性이 크며, 경제적 긴장은 夫婦間의 適應과 같은 非經濟的 狀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한남제 1984, 197).

부인의 職業有無에 따라 離婚態度는 유의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모든 下位領域에서 無職業婦人에 비해 職業婦人의 경우, 이혼에 대해 許容的인 態度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婦人

의 經濟的 自立能力은 부당한 대우를 참고 굴종하기보다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意味가 강하게 作用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結婚形態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혼태도는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혼태도의 경향은 연애결혼의 경우 중매결혼에 비하여 許容的인 離婚態度를 갖고 있는 경향이다. 연애결혼은 夫婦의 愛情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結婚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결혼생활의 差異에서 오는 失望감이 중매결혼에 비해 더욱 크게 作用함으로써 離婚에 許容的인 態度를 보이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또한 부모의 結婚幸福度에 따른 離婚態度 역시 差異를 보이지 않으나, 모든 下位領域에서 父母의 結婚이 幸福한 집단일수록 이혼에 否定的 態度를 보이며 불행한 집단의 경우는 許容的 態度를 나타내는 경향이다.

4) 가설 3의 검증결과 및 해석

結婚満足도와 離婚態度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 3-1을 把握하기 위해 Pearson의 積률상관계수를 적용하였는 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結婚満足도와 離婚態度는 r = .283으로 의미 있게 상관계되고 있다. 이혼태도는 結婚満足도의 같

표 5.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의 상관관계

	S1	S2	S3	S4	S5	S6	S7	S	D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S1)	1.000	0.633***	0.543***	0.567***	0.386***	0.399***	0.238***	0.819***	0.237***
결혼의 안정성 (S2)		1.000	0.545***	0.514***	0.336***	0.359***	0.198***	0.776***	0.257***
부부간의 의견일치 (S3)			1.000	0.500***	0.278***	0.357***	0.150***	0.726***	0.149***
동료 감 (S4)				1.000	0.279***	0.339***	0.240***	0.743***	0.167***
부부관계의 갈등 (S5)					1.000	0.220***	0.098***	0.600***	0.207***
친척과의 부조화 (S6)						1.000	0.110***	0.601***	0.243***
갈등해결방법 (S7)							1.000	0.359***	-0.002***
총체적 결혼만족도 (S)								1.000	0.283***
전반적인 이혼태도 (D)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결혼만족도에 따른 이혼태도

이혼태도	결혼만족도			F 값
	매우만족(51)	보통(254)	매우불만(49)	
객관적 불안정성 (D1)	0.88	0.50	0.26	4.519*
부부생활의 긴장 (D2)	0.48	0.06	-0.17	5.549**
경제적 긴장 (D3)	0.64	0.24	-0.30	5.316***
가족관계의 부조화 (D4)	0.55	0.29	0.05	4.156*
결혼의 영속성 (D5)	0.11	0.01	-0.39	2.436
전반적 이혼태도 (D)	2.67	1.11	-0.56	10.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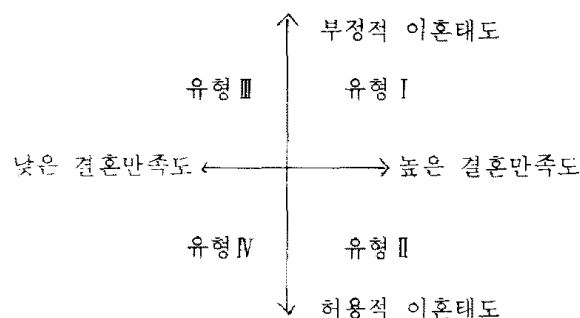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등해결방법 영역(S₇)을 제외한 모든 下位領域과도 意味있게 相關되고 있는데 특히 結婚에 대한 후회 및 이혼고려등의 내용을 包含하는 結婚의 안정성 영역(S₂)과 關聯된다. 즉 結婚의 安定性이 낮으면 離婚態度는 높게 내재할 것임(r = .257, p < .001)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친척과의 부조화 영역(S₈)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영역(S₁) 및 부부관계의 갈등영역(S₅)도 離婚態度와 關聯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結婚滿足度 水準에 따라 離婚態度는 差異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해서 結婚滿足度 水準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의 離婚態度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結婚滿足度에 따른 離婚態度는 結婚의 영속성 영역(D₅)을 除外한 모든 領域 즉 객관적 불안정성 영역(D₁), 부부생활의 긴장영역(D₂), 경제적 긴장영역(D₃), 가족관계의 부조화 영역(D₄)에서 有意한 差를 보인다. 또한 全體的인 離婚態度 역시 p < .001 水準에서 의미있는 差를 보여 가설 3-2는 肯定되었다. 結婚滿足度가 높은 집단은 離婚態度가 2.67, 보통인 집단은 1.11, 結婚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0.56으로, 結婚滿足度가 높을수록 離婚에 대한 態度는 否定的이며, 結婚滿足度가 낮을수록 이혼에 대한 태도는 許容的임을 알 수 있다.

표 7. 結婚안정성의 4가지 유형



5) 가설 4의 검증결과 및 해석

結婚안정성을 類型化하기 위해서 結婚滿足度와 離婚態度를 平均(M)을 基準으로 하여 平均以上과 平均以下의 두 집단으로 각각 구분으로 Cross-tabulation 한 結果 표 7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結婚滿足度와 離婚態度를 結婚안정성의 지표로 한 結婚안정성의 4가지 類型은 다음과 같다.

〔類型 1〕: 結婚안정성이 매우 높은 집단

結婚滿足度가 높고 부정적 이혼태도론 갖는 집단을 의미한다.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結婚안정성이 매우 높다.

〔類型 2〕: 主觀的 不安定性이 높은 집단

結婚滿足度는 높으나, 許容的 離婚態度를 갖고 있는 집단을 뜻한다.

표 8. 결혼안정성의 일반적 경향

유형	f	%
결혼안정성이 매우 높은 집단	110	31.0
주관적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	82	23.2
객관적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	60	17.0
결혼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집단	102	28.8
계	354	100.0

[類型 3]: 客觀的 不安정성이 높은 집단
結婚滿足도는 낮으나, 否定的 離婚態度를 갖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類型 4]: 結婚不安정성이 매우 높은 집단
結婚滿足도가 낮으면 離婚態度도 許容的 態度를 보인다. 結婚不安정성이 매우 높게 內在되어 있는 집단이다.

類型別 結婚安定성의 一般的 傾向은 표 8과 같다. 結婚安定성이 매우 높은 집단은 31.0%이며, 主觀的 不安정성이 높은 집단도 23.2%, 客觀的 不安정성이 높은 집단은 17%, 結婚不安정성이 매우 높은 집단은 28.8%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로 볼 때, 가장 이상적 유형인 結婚安定성이 매우 높은 集團은 31.0%에 불과하며, 主觀的 不安정성이나 客觀的 不安정성 중 어느 한 쪽의 不安정성이 높은 集團이 40.2%이고, 가족해체의 不安을 안고 있는 結婚不安정성이 높은 集團이 28.8%로 나타났다.

VI. 結論 및 提言

本 研究의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結婚滿足도가 높은 集團이 結婚滿足도가 낮은 集團보다 약간 높은 傾向을 보이며, 보통인 정도가 대부분이다. 또한 離婚態度는 許容的 離婚態度를 갖는 사람이 부정적 離婚態度를 갖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離婚態

도가 否定的인 態度에서 許容的인 態度로 變化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結婚滿足도에 影響을 미치는 變因은 子女數, 婦人의 教育水準, 父母의 結婚幸福度 등으로 나타났으며, 結婚持續年數·收入·婦人의 職業有無 및 結婚形態는 結婚滿足도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變因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結婚幸福도에 따른 結婚滿足도는 갈등의 해결방법영역(S_1)을 제외한 모든 下位領域에서 差異를 나타내고 있어, 父母의 結婚幸福도는 結婚滿足도에 가장 중요한 影響을 미치는 變因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인의 教育水準과 收入에 따른 이혼태도는 부분적으로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나, 子女數·結婚持續年數·婦人의 職業有無·結婚形態·父母의 結婚幸福도는 離婚態度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變因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離婚態度의 下位領域 중 客觀적 불안정성 영역(D_1)과 결혼의 영속성 영역(D_5)에서 許容的 이혼태도를 가지며($p < .05$), 경제적 긴장영역(D_3)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許容的 離婚態度를 보인다($P < .05$).

넷째,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는 $r = .283$ 의 相關關係에 있다. 특히 結婚滿足도의 下位領域 중 결혼의 안정성 영역(D_2)은 離婚態度와 가장 關聯성이 높게 내재되어 있다. 또한 結婚滿足도에 따른 이혼태도는 결혼의 영속성 영역(D_5)을 제외한 모든 영역 즉 客觀적 불안정성 영역(D_1), 부부생활의 긴장영역(D_2) 및 경제적 긴장영역(D_3), 가족관계의 부조화 영역(D_4)에서 有意的이다. 結婚滿足도가 높을수록 否定的 이혼태도를, 結婚滿足도가 낮을수록 許容的 이혼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에 따른 結婚安定성을 類型化한 結果,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結婚安定성이 매우 높은 유형, 주관적 불안정성이 높은 유형, 객관적 불안정성이 높은 유형, 結婚不安정성이 매우 높은 유형이다.

이상과 같은 結論을 통해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提議를 하고자 한다.

첫째, 父母의 結婚幸福度는 結婚滿足度 下位領域 중 갈등해결방법(S₇)을 제외한 6개 領域에서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부모의 結婚幸福도가 子女의 結婚 成功與否에 중요한 變因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研究結果를 볼 때, 結婚의 幸·不幸은 결혼당사자인 부부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結婚生活의 학습의 場인 가정에서 父母를 역할모델로 하는 子女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항상 원만한 부부관계의 適應을 위해서 努力하는 意志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離婚態度는 부인의 教育水準과 收入에 따른 部分的인 有意差를 보이고 있을 뿐, 그 이외의 다른 변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本 研究의 이와 같은 結果는 離婚態度 자체에 관한 先行研究의 부족으로 研究者 自身이 이혼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豫想되는 변인을 임의로 선정한 데에 기인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선정한 배경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을 선정하여 이혼태도와의 關聯變因을 밝혀낼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結婚不安定性的의 要因이 되고 있는 離婚態度에 관한 研究가 없었으므로, 후속연구를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하는데 本 研究의 意義를 두고자 한다.

셋째, 이혼에 대한 社會的 비난의 감소와 本 研究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否定的 이혼태도에서 許容的 이혼태도로의 變化는 離婚增加의 중요한 原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혼예방을 위한 長期的인 對策으로 學校教育뿐 아니라, 각종 社會教育·成人教育 프로그램의 開發을 통한 건전한 夫婦生活 教育의 실시가 要請된다. 또한 급변하는 時代的 狀況에 맞는 現代的 結婚觀, 結婚의 永續性

에 대한 意志, 夫婦의 倫理觀 등 새로운 價値觀의 定立이 要求된다고 사료된다.

本 研究의 제한점은 표집의 대상이 중위층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韓國의 都市主婦 전체에 一般化시키기가 어렵다는 점과, 단지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結果를 해석함으로써 結婚滿足도와 離婚態度의 상호 영향력을 把握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文化的 背景에 맞는 표준화된 結婚滿足度 尺度의 開發과 複雜하고 다양한 이혼사유의 규명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結婚安定性的의 저해요인인 許容的 離婚態度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김명자 :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2) 김혜선 :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a
- 3) 김혜선 : 현대가족문제에 관한 연구(한·일간의 이혼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1), 1982b
- 4) 유영주 :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가정대학 논문집 제4권(서울대학교) 1979,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1985
- 5) 유은희 : 한국도시부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6) 이기영 :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11~127, 1984
- 7) 이동원 : 도시가족(서울)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39집 (이화여자대학교) 197~225, 1981
- 8) 이옥진 :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가족환경변인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9) 이정련 :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0) 이태영 : 한국이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68, 한국의 이혼을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1
- 11) 조정련 : 이혼제도의 사적배경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논문집 제9집 49~67, 1976
- 12) 차명희 : 이혼원인으로서의 파탄주의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3) 한남제 : 가족해체의 문제점. 한국사회학 4 : 70~90, 1968
- 14) 한남제 : 한국도시가족의 가족문제. 경북대학교 논문집 제5집 107~120, 1971
- 15) 한남제 :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178~208, 1984
- 16) 홍승직 :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 17) Booth A, Johnson D and Edwards JN :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5, No 2, 387~393, 1983
- 18) Booth Alan, White Lynn : Thinking Abou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No 3, 605~616, 1980
- 19) Bowerman Charles E : Adjustment in Marriage : Over-all and in Specific are area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 41, March-April, 257~263, 김혜선(1982)20에서 재인용 1957
- 20) Burns Ailsa : Perceived Causes of Marriage Breakdown and Conditions of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6, No 3, 551~562, 1984
- 21) Burr, Wesley :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No 1, 29~37, 1970
- 22) Burr, Wesley R, Geoffrey K Leign, Randall D Day and John Ccnstantine :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I, ed Wesley R Burr, Beuben Hill, F Ivan Nye and I re L Reiss, new York : The Fress Press, 42~110, 1979
- 23) Glenn, Norval D and Charles N Weaver : A Multivariate, Multisurvey study of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0, 269~282, 1978
- 24) Hawkins, James L : Associations Between Companionship, Host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647~650, 1968
- 25) Hicks, Mary W and Platt, Marilyn : Marital Happiness and Ivan Nye and Ira L, Reiss, New York : The Free Press, 268~294, 1970
- 26) Huber Joan, Spitze Glenna : Considering Divorce : An Expansion of Becker's Theory of Marital In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6, No 1, 75~89, 1980
- 27) Jorgensen Stephen R, Johnson Alberta C : Correlates of Divorce Liber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No 3, 617~625, 1980
- 28) Levinger G : Marital Cohensiveness and dissolution : An inter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7 : 19~28, 1965
- 29) Lewis RA, Spanier GB : Marital Quality. *A Review of Seventies Decade Review : Family Research* 19 70~1979, 1980
- 30) Lewis RA, Spanier GB :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ed Wesley R Burr, Reuben Hill, F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1, No 38 : 15~28, 1979
- 31) Roach, Arthur J, Frazier Larry P, Bowden Sharon R :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3, 537~546, 1981
- 32) Spanier Graham B :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Stability :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No 4, 553~564, 1976
- 33) Troll LB, Miller SJ and Atchey RC : Families in Later Life.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Bert N Adams,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 Co 310, 1980
- 34) Yoder Jan D, Nichols Robert C : A life Perspective Comparison of Married and Divorced Peas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No 2, 413~419, 1980